

추석 귀향비 주고 차값 내리고 9월 국산차 '할인경쟁' 뜨겁다

국내 완성차업체들이 9월 들어 추석 귀향비를 지원하고 주력 모델의 가격을 낮추는 등 할인 마케팅에 나섰다.

4일 자동차업계에 따르면 현대차는 오는 30일까지 아반떼, 쏘나타 뉴라이즈, 투싼, 싼타페, 맥스쿠르즈 구매 고객을 대상으로 추석 귀향비 30만~50만원을 지원한다.

이달 중 쏘나타 뉴라이즈나 2018년형 싼타페를 구매할 경우에는 2천대에 한해 차량가를 5% 할인해준다.

기아차는 모닝, K3, K5, K7, 스포티지, 모하비 출고 고객 선착순 5000명에게 2~12%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또 K7과 K7 하이브리드 판매가격을 40만원 낮춘다. 5년 이상 차량을 보유한 고객이 이달 중 스포티지를 출고하면 50만원을 할인받을 수 있다.

현대차 아반떼·투싼·싼타페 귀향비 30만~50만원

기아차 모닝·K3·K5·K7·모하비 2~12% 할인

쌍용차 G4 렉스턴 할부 구매 여행비 30만원 지원

르노삼성 QM3 구매하면 50만원 한도내 용품값

한국지엠 웨보레는 내수 판매 100만대 돌파를 기념해 특정 기간 생산된 제품에 한해 콤포 할부 조건 충족 시 판매가격을 할인해주는 '웨비 페스타'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말리부 구매 고객 2천명과 트랙스 고객 1000명에게는 5% 할인율을 적용해 각각 최대 160만원, 130만원의 구매 비용을 절감해준다.

스포츠카 카마로SS는 4% 할인돼 최대 203만원 저렴해지며 임팔라, 올란도, 캡티바에는 각각 6%, 7%, 8% 할인 혜택이 주어진다.

쌍용차는 G4 렉스턴을 저리 할부(4.9%, 할부원금 1000만원 이상 이용시)로 구매할 경우 브이클 프리미엄 윈도 틴팅이나 가을 여행비 30만원 중 한 가지를 지원한다. 레저용차량(RV) 보유 고객이 타던 차를



기아차 K7

중고차 경매업체인 마이가 옥션에 팔고 G4 렉스턴을 구매하면 최대 310만원의 할인 혜택을 준다.

티볼리 브랜드는 무상보증 기간을 동급 최대인 7년·10만km로 연장하고, 티볼리 아머 전용으로 새로 개발된 태블릿 내비게이션을 무상 장착해주거나 30만원을 깎

아준다.

르노삼성은 각 차종의 생산 월과 연식 등에 따라 현금 할인과 옵션, 용품, 보증연장 쿠폰 등의 다양한 구매 혜택을 고객이 직접 선택하는 프로모션을 마련했다. 예를 들어 지난달까지 생산된 SM6와 SM7 구매 고객은 각각 80만원, 100만원 한도 내

에서 용품과 옵션을 자유롭게 선택하거나 50만원의 현금 지원을 받을 수 있다.

QM3 구매 시에는 50만원 한도 내 용품 구매가를 지원하거나 30만원 할인 또는 5년 보증연장 혜택을 제공한다. 여성 고객에게는 30만원의 현금을 추가로 지원한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기아차는 4일 서울 구로구 서비스사업부 사옥에서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한국사회복지관협회와 함께 사회복지관 노후차량 정비 지원사업인 '케어-모빌리티 케어' 지원금 전달식을 가졌다. 왼쪽부터 김효진 공동모금회 본부장, 변동문 기아차 사업부장, 최주환 사회복지관협회 회장, 김영진 한국기아오도쿠연합회 회장. <기아차 제공>

기아차 "소외계층 이동 더 안전하고 편하게"

사회복지관 노후차량 정비 지원금 1억5000만원 전달

기아자동차가 소외계층의 더 안전하고 편안한 이동을 돕기 위해 전국 사회복지관의 노후 차량 정비를 지원한다.

기아차는 4일 서울 구로구 서비스사업부 사옥에서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한국 사회복지관협회와 함께 사회복지관 노후차량 정비지원사업인 '케어-모빌리티 케어(K-Mobility Care)' 지원금 전달식을 진행했다.

협약에 따라 기아차는 지난 4월 모집 공고를 통해 선정된 전국 사회복지관의 5년 이상 노후 차량 102대에 대해 최대 200만원까지 수리비를 지원하고 블랙박스 기기를 제공한다.

이날 기아차는 차량 수리를 위한 지원금 1억5000만원을 한국사회복지관협회에 기부했다. 아울러 정비 지원 대상 노후 차량 102대 외에도 전국 모든 사회복지

기관 차량이 지정된 오토쿠 사업장(전국 371개 지정 협력사)에서 차량정비를 받으면 1년에 1회에 한해 정비 공임료의 20%를 할인해준다.

기아차 관계자는 "이번 차량 정비 지원을 통해 사회복지관 이용자들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하는데 도움이 됐으면 한다"며 "기아차는 앞으로도 어려운 이웃을 돕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대성기자bigkim@kwangju.co.kr

현대차 제네시스 세번째 세단 'G70' 출격

15일부터 출시... 가격 3750만~5230만원대

현대자동차 고급 브랜드 제네시스의 세번째 세단 'G70'이 드디어 모습을 드러냈다. 현대차는 G70이 럭셔리 세단 브랜드로서 제네시스의 입지를 넓여줄 것을 기대한다. 현재 국내외에서 직면한 위기를 타개하려면 기존 '가성비 좋은 자동차'를 넘어서는 브랜드로의 변신이 절실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중형 럭셔리 세단 G70 출시 가격은 3750만~5230만 원대이다. 이전 대형 세단 모델인 G90(국내명 EQ900), G80보다 문턱이 더 낮아졌다. 주요 경쟁 차종은 젊은층에 인기가 높은 독일계 3대 브랜드 메

르세데스벤츠 C클래스, BMW 3시리즈, 아우디 A4 등이다.

현대차는 지난 1일 서울 강남구 현대모터스튜디오 서울에서 G70 공개행사를 가졌다.

황정렬 제네시스PM센터장(전무)은 "G70은 독일 브랜드가 장악하고 있는 국내 중형 세단 시장에서 존재감을 발휘할 것이라 확신한다"며 자신감을 드러냈다.

제네시스 G70은 이전 모델과 비교해 세단 모델인 G90(국내명 EQ900)보다 디자인이 특장. 상대적으로 차체가 낮지만 타이어와 휠이 커 공격적으로 보이게끔 디자인했다.

끝단이 살짝 올라간 트렁크 덕분에 세단이지만 스포츠카의 느낌이 풍긴다. 실내는 운전자의 손이 닿는 곳마다 가죽을 덧대 고급스러움을 높였다. 제네시스 G70은 블레이징 레드, 그레이스플 그레이, 레피스블루 등 10종의 색상으로 출시될 예정이다. 판매는 오는 15일부터 시작한다.

제네시스 G70은 3.3 가솔린 터보 및 2.0 가솔린 터보, 그리고 제네시스 브랜드 최초의 디젤 엔진인 2.2 디젤 등의 라인업으로 출시될 계획이다. 3.3 가솔린 터보 모델의 경우 제로백(정지 상태에서 시속 100km에 이르는 시간)은 4.7초, 최대 시속 270km로 힘 있는 성능도 갖췄다.

/김대성기자bigkim@kwangju.co.kr

토요타, 8세대 완전변경 '뉴 캠리' 사전 계약

토요타코리아는 지난 1일부터 8세대 완전변경(풀 체인지) '뉴 캠리'의 사전 계약을 받기 시작했다고 4일 밝혔다.

토요타에 따르면 8세대 뉴 캠리는 '좋은 차 만들기 프로젝트'(TNGA)에 따라 주행 안전성, 디자인, 엔진·트랜스미션·하이브리드 시스템 등이 개선됐다.

특히 디자인 측면에서 앞면 디자인이 더 넓고 낮아져 역동성이 강조됐고, 소형화·경량화·고효율을 실현한 '뉴 2.5L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통해 효율적 연비와 강력한 주행 성능이 더해졌다.

토요타 코리아 관계자는 "임소문을 타고 고객 관심이 커져 사전 계약을 결정했다"며 "캠리 하이브리드를 통해 토요타의 주행 성능과 하이브리드 시스템의 우수성을 경험할 수 있을 것"이라고



8세대 뉴 캠리.

<토요타코리아 제공>

말했다.

뉴 캠리 가격은 오는 10월 공개될 예정이며, 사전 계약 관련 상세 내용은 전국 토요타 전 시장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투자가치 높은 물건, 자신있게 추천합니다. 문의 H. 010-3605-5000

삼각동, 토지

- 광주 북구 삼각동 147-4, 11, 15번지 - 313평
209, 209-1번지 - 203평
- 31사단, 삼일아파트 지나서 옆마을
- 도시지역, 제1종 일반주거지역
- 아파트 예정 후보지 1순위 지역
- 단기간 투자 최고지역
- 매매 - 평당 200만원 (조정가)

리조트 / 무인텔

- 전남 화순군 도곡면 천암리 748
도곡 관광온천지구 내, 숙박시설
- 대지 2980평, 건물 1055평
- 3개동, 객실 52개, 각 호실 개별등기
- 감정가/시세 70억, 매매 42억
- 온천지구 내 (주) 바리오 화순' 에
650억 투자 예정 (2018년 2월 착공)

다도면, 임야

- 나주시 다도면 판촌리 산191-17
한전(KPS) 연수원 인근
- 임야 1423평, 보전관리지역
- 혁신도시 15분, 남평에서 10분
- 모든업종 개발가능
- 호수를 품은 최고의 전망
- 매매 - 평당 70만원

광양, 근린상가

- 광양시 중동 1888-1번지
락희호텔 근처
- 6층중 4층, 210평
- 2012년 신축, 분할매매가능
- 모든업종 오픈 가능
- 시세/감정가 - 12억 5천만원
- 매매 - 7억 8000만원